오늘의 게시판

BK 21 워크숍 오후 2시 목포시 신안비치호텔 2층 장미홀

행사

〈28일〉

▲지석천 선사하천문화 복원을 위한 타당성 및 하천환경관리계획 설명회=오후 2시 화순군청 회의실.

▲BK 21 워크숍=오후 2시 목포시 신안비치호텔 2층 장미홀.

〈29일〉

▲광주상공회의소 주최 제 1회 광주·전남 고용포럼= 오후 2시 광주상의 7층 회의실. 기업체·하계 및 경제유관기관 고용·인적자원 관련담당자 100여명 참석.

▲2006년 축산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축산인 결의대회=오전 10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한우·낙농관계자 300여명 참석해 토론 및 결의대회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건설 세미나 개회식=오후 2시 전남도청 4층 대회의실.

▲제 3회 전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 전야제=오후 7시 완도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30일까지.

공연

▲화요예술무대 '리플레쉬'=29일(화)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소년, 천국에 가다=29일(화) 오후 3시 광산문예회관.

전시

▲그룹초대전 21세기 정신조각회전=9월1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개점 11주년 기념전 '섬,역사문화 기행전'=9월4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북아트 페스티벌=9월6일까지 롯데화랑.

▲광주청년작가전=30일까지 메트로갤러리.

▲서양화가 정춘수 개인전=30일까지 무등갤러리.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작품 41점 전시.

▲인(人)과 예술의 만남전=31일까지 향토문화센터 3층 오월문학관.

▲서봉한 서양화가 초대전=31일까지 동림우체국.

▲동양척식회사 복원기념 특별사진전=목포시 중앙동 2가 6번지 구 동양척식회사. 목포시가 수집한 사진 200점 전시. 올해 말까지.

▲제 7회 무등산 사랑전=31일까지 자미갤러리. 한국화·서양화·문인화 등 51점.

▲일곡도서관 동아리 회원전=31일까지 일곡갤러리. 입체 POP디자인 30점·닥인형 30점·퀼크 20점 등 회원들의 작품 전시.

▲오월문학관 기획 전시회=31일까지.테이블·액자 등 30여점 전시.

광주일보가 실시한 25·26회 뉴스 퀴즈 추첨 결과, 장정우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장씨는 27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이 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25·26회 뉴스 퀴즈에는 엽서와 편지로 324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으며, 공정한 추첨을 위해 광주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임채홍 경사와 정익진 경장이 입회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위 ▲장정우·영광군 군남면

2위 ▲복진숙·화순군 화순읍

뉴스퀴즈

27.사행성 성인 오락기를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검찰은 성인용 오락기 뿐 아니라 경품용 상품권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슬롯머신처럼 화면에 문어·조개 등의 그림이 돌아가다가 멈추면서 배열에 따라 점수를 얻는 릴게임의 일종인 사행성 성인오락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바다이야기 ②횟집이야기

③중국집 이야기 ④문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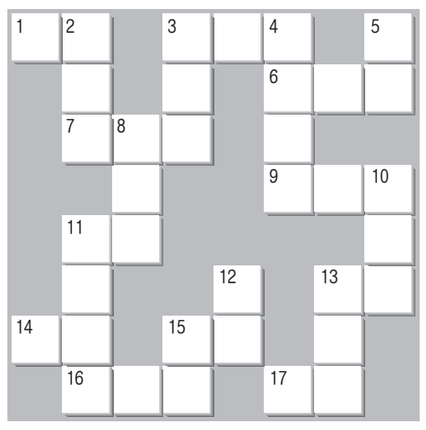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함께 풀어봅시다 < 216 >



→ 가로풀이

1.산모가 아무 탈 없이 순조롭게 아이를 낳음.↔난산 3.당의 직책을 맡은 사람. 여당은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물어 많은 ~를 교체했다. 6.미음, 죽,수프 등 소화되기 쉽도록 묽게 만든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7.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한 돈. 9.소총이나 권총에서 총알을 발사하게 하는 장치. 굽은 쇠 모양이며 집게손가락으로 잡아당겨서 총을 쏘게 되어 있다. 11.솜이나 짐승의 털로 속을 넣고 천으로 겉을 싸서 선을 두르고 곱게 꾸며 앉는 자리에 늘 깔아 두는 두툼하게 만든 요. ~를 깔다. 13.유리나 사기 등으로 둥글게 만든 놀이 기구. 아이들이 ~ 따먹기를 하고 놀다. 14.야구에서 볼이 4개 들어와 타자가 1루까지 진루할 수 있는 것을 이르는 말. 4번 타자를 ~로 걸러 내보내다. 15.의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의 병이나 증상을 살피는 일. 16.일단 수입한 상품을 그대로 다시 외국에 되파는 일.↔역수입. 17.사람의 몸. 건강한 ~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 세로풀이

2.물건이 많이 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또는 어떠한 일이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회사 업무가 ~처럼 밀려 있어 도저히 짬이 나지 않는다. 3.복권이나 행운권 등의 추첨에서 뽑힌 사람이 받는 돈. 이번주 로또복권의 ~은 35억원이나 된다. 4.격식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행동이 자유로움. 그녀는 옷차림이 너무 ~하다. 5.수학에서 계산의 법칙을 문자와 기호로 나타낸 것. 인수분해 ~에 대입해 문제를 풀다. 8.학원에서 강의나 강습을 듣기 위해 내는 돈. 10.쇠로 만든 고리를 여러 개 죽 이어서 만든 줄.→체인. 두 팔과 두 다리를 ~로 칭칭 감아 꼼짝을 못하도록 했다. 11.수입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거나 수출 절차를 밟지 아니한 화물을 관세를 매기지 아니한 채 놓아 둘 수 있는 곳을 이르는 말. 12.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정을 살핌. 경찰은 우범 지역의 ~을 크게 강화했다.→순시. 13.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로 된 문체.↔문어체. 15.어떤 방면으로 활동 범위나 세력을 넓혀 나아감. 여성의 사회 ~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함께 풀어봅시다 215회 정답〉

▲지난주 당첨자

김영순·장성군 장성읍

김형우·광주시 서구 치평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8일(음(윤) 7월 5일 己丑)

子 36년생 업의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보라. 48년생 자금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때 60년생 막힌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인내해야 한다. 72년생 안도의 숨을 돌리나 재충전하라. 84년생 大苦(대고)는 없지만 득도 없다 행운의 숫자 : 01,02

丑 37년생 큰 고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좋은 일도 있는 것은 아니다. 49년생 평범한 하루이나 고뇌수는 있다. 61년생 시간을 내어 주변을 살펴보라. 73년생 업무상 고민이 생기니 현명하게 처신해야. 85년생 후배와 금전거래는 금물. 행운의 숫자 : 10,20

寅 38년생 하늘 한번 우러러 보라. 50년생 할 일이 많으니 건강을 점검해보라. 62년생 길사가 계속 될 것이나 손아래 사람의 고충을 생각하라. 74년생 자기개발에 계획을 세우고 조용히 추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3,12

卯 39년생 남자는 처가 쪽을 여자는 시가 쪽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라. 51년생 자녀로 불편은 있으나 어렵지는 않다. 63년생 문서는 꼼꼼히 살펴서 확인해야 하리라. 75년생 보증은 절대금물이고 부부간에 대화를 해야할 때. 행운의 숫자 : 04,11

辰 40년생 개운치가 않으니 운동을 해야. 52년생 부부가 화합하기 좋은 날이니 서로 사랑하라. 64년생 유흥 속에 허송세월 한탄 하랴. 76년생 형제나 근친간의 말썽이 될 수도 있으니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할 때. 행운의 숫자 : 05,10

巳 41년생 부부 및 주변에서 소사에 소쟁이 일어날 수 도 있다. 53년생 모든 일이 즐겁게 시작 된다. 65년생 뜻밖의 인연을 주의하라. 77년생 절대 욕심내지 말고 차분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모든 것을 실리위주로 정리해야. 행운의 숫자 : 06,09

午 42년생 생활이 나태해질 수 있으니 부부간의 등산으로 의기투합을 시도해 보라. 54년생 처나 남편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66년생 미운 사람이 나타나니 용서하며 살아라. 78년생 옛 것으로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행운의 숫자 : 07,08

未 43년생 사랑은 이제부터. 55년생 가정의 불화와 부부간의 언쟁은 쌍방과실이다. 67년생 모든 일이 길사로 연결되며 이사 할 수도 생기나 즐거운 이다. 79년생 용기 있게 전진해도 무리가 없고 좋은 결과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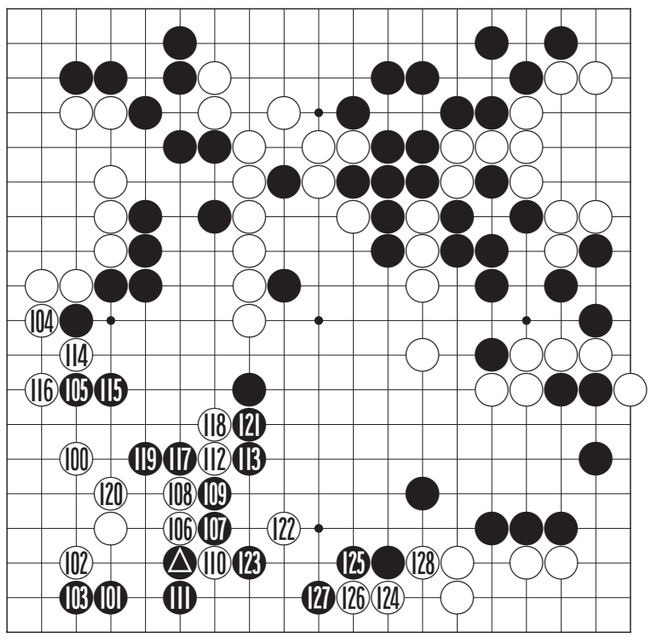
申 44년생 침체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손아래사람에게 내 것을 내준다는 마음으로 보내라. 56년생 마지막 고생이 남아 있다. 68년생 될 듯 될 듯한 계획이 계속 미루어진다. 80년생 헛 문서잡고 눈물날라. 행운의 숫자 : 26,29

酉 45년생 뒷일을 마무리 할 사람이 없다. 57년생 부하의 협조로 무거운 짐을 덜어주니 고맙게 생각하라. 69년생 발걸음은 가벼우나 마무리가 시원치가 않다. 81년생 지혜 있는 선배와 상의하고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행운의 숫자 : 30,36

戌 46년생 고목회춘이니 더욱 더 잘 가꿔야. 58년생 희망의 새아침을 만나는 격이니 계획을 세워라. 70년생 새로운 문서와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니 주변을 살펴보라. 82년생 도와줄 사람이 못 본채해도 괴로워 하지마라. 행운의 숫자 : 31,41

亥 47년생 대고는 없으나 주변의 아픔들이 보인다. 59년생 작은 것 얻고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 71년생 큰 투자는 않는 것이 좋으며 신규사업은 피하라. 심적고통은 없으리라. 83년생 여성을 만날 땐 꼭 결혼한 선배와 상담하라. 행운의 숫자 : 4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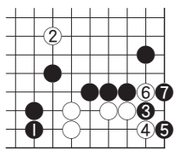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노련한 마무리 3회전 제 6보(100~128)

白 박명수 5단 〈농협〉 黑 이민재 5단 〈광주시청A〉



〈참고도〉

지금까지의 형세는 우변에서 흑 대마를 크게 잡은 백 우세. 흑이 던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국면이지만 단체전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민재 5단은 흑 △로 걸치고 103으로 밀고 들어갔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내려서고 3으로 젖히는 것이 큰 자리다. 그러나 형세가 워낙 비관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려고 103을 둔 것이다.

104가 박명수 5단의 노련미를 말해주는 두터운 수다. 유리할 때는 두텁게 두고 불리할 때는 엷더라도 큰 곳을 가게 된다. 흑이 하변에 기대를 걸어 보았으나 박 5단이 잽싸게 124부터 128까지 좁혀들어가서 모든 변수가 사라졌다. 이후에도 많은 진행이 있었으나 승부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총보로 미룬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바둑소식

한국 7명, 도요타 덴소배 첫 승

이창호, 이세돌, 최철한 등 한국 출전 기사 7명 전원이 지난 26일 일본기원에서 열린 제3회 도요타덴소배 세계왕좌전 1회전을 통과했다.

고근태 5단은 이날 중국의 뤄시허 9단을 반집으로 꺾고 가장 먼저 2회전에 진출했으며, 이창호, 이세돌, 박영훈, 박정상, 최철한, 박영훈도 차례로 승전보를 전했다.

28일 열리는 2회전에서는 이창호-구리, 박정상-창하오, 최철한-펑첸, 이세돌-조선진, 조한승-장쉬, 고근태-하네나오키, 박영훈-양시하이 조가 각각 격돌한다. 대회 우승상금은 3천만엔(한화 약 2억7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720>

I would sooner ~ than…

~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하고 싶다

A : You're complaining about your office again.
B : Yes. My boss is really unbearable.
A : If I were you, **I would sooner quit the job than** keep complaining.
B : Yes, it's about time to think it over seriously. But the pay is really good...

A : 너, 또 다시 네 회사에 대해 투덜거리고 있구먼.
B : 그래, 우리 사장, 정말 못 봐주겠어.
A : 내가 너라면, **계속 불평을 하느니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겠다.**
B : 그렇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겠어. 하지만 월급은 정말 좋거든.....

* would sooner do than ... : …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하고 싶다 =would as soon do as ...
- I would sooner die than do it.
(그것을 할 바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 keep ~ing : 계속하여 ~해대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720>

わあ,うらやましいですね

와, 부럽군요

A : 明日(あした)から,冬(ふゆ)の休暇(きゅうか)なんですよ.
B : いいですね. 年末年始(ねんまつねんし)はどこかえい行くんですか?
A : ええ,この年末年始(ねんまつねんし)は,ハワイで過(す)ごそうと思(おも)いまして…
B : **わあ,うらやましいですね.**お土産(みやげ),期待(きたい)して待(ま)ってますよ.

A : 내일부터 휴가 입니다.
B : 좋겠군요, 연말연시 어디에 갑니까?
A : 에에, 이번 연말연시는 하와이에서 보내려고 생각합니다만…
B : 와, 부럽군요. 선물 기대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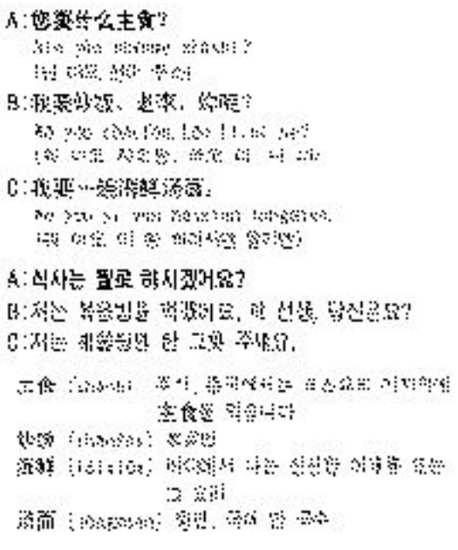
* (す)ごす : 지내다 보내다
* ~うようと思(おも) : ~하려고생각하다
* うらやましい : 부럽다
* 期待(きたい) : 기대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438>

您要什么主食?

식사는 뭘로 하시겠어요?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338>

隱退(은퇴)

숨을 은, 물러날 퇴

은(隱)은 부(阜 : 벽)+은(𤰈:'물건工'을 위아래 손으로 덮어 숨김)으로, 벽으로 숨겨 보이지 않게 함이다. 퇴(退)는 일(日)+치(夂 : 멈추기를 잘하는 발)+착(辶 : 발의 동작)으로, 발이 멈추고 나아가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은퇴(隱退)는 세간(世間)의 공적인 활동을 그만두고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쇠약해졌거나 상황이 불리할 때, 재충전을 위한 은퇴를 선언하였다가 슬그머니 다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는 현재의 직임(職任)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는 것을 의미한다.

정년퇴임(停年退任)의 경우는 조직의 질서원리에서 따라 정해진 나이에 현직(現職)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건강이나 일의 능력에는 개인의 편차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나이의 한계로 퇴직(退職)해야만 해서 우리를 안타깝게 만든다.

올해도 어김없이 8월 말로 은퇴와 퇴임으로 '임하(林下)'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빈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